

전북교육청, 어울림·원도심·농촌유학운영학교 교육과정 사례 나눔

작은학교 살리기 ‘온 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대강당에서 2024년도 어울림학교·원도심학교·농촌유학운영학교 교육과정 사례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농촌유학 등 작은 학교 살리기 핵심사업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울림학교는 2023년 139개 학교에서 올해 147개 학교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운영 학교가 23개에 달하는 등 어울림학교 본연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도심학교는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에서 49개교가 운영중이다.

농촌유학은 2022년 4개 지역 6개교 27명에서 2023년 8개 지역 18개교 84명, 올해 10개 지역 26개교 159명으로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어울림학교·원도심학교·농촌유학운영학교 교육과정 사례나눔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 경험 공유·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 찾기 위해 추진

로 꾸준한 성장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지역 단위의 사례 나눔을 통해 작은 학교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농촌유학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만들어 단위 학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어울림학

교와 농촌유학 운영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원도심학교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식품공정기술개발·상용화 기여

전주대 신정규 교수, ‘신송 식품과학상’ 수상

전주대학교 신정규 교수(한식조리학과)는 지난 12일 (사)한국산업식품공학회(회장 박영서)로부터 ‘신송 식품과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재)신송기술산업발전재단(신송재단) 창업주인 조갑주 회장이 식품산업 분야의 학술적 연구 활동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사)한국산업식품공학회에서는 신정규 교수가 식품산업의 ‘식품공정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신 교수는 지난 17년간 비가열살균공정 분야와 상품개발 분야와 관련한 70여편의 논



문 게재, 40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그리고 70여 건의 산학협동연구과제를 활발히 수행했다.

최근에는 다이나믹듀오의 ‘최자’와 농업회사법인 도솔가가 출시한 복분자 와인을 개발해 기술 이전하는 등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정규 교수는 “더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지난 15년간 미국, 일본 등 해외 42개국의 외교부 재외공관 관저 조리사로 86명을 파견했으며, 국내 조리 고등학교에서 18명이 조리교사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 한식 분야를 선도하는 학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16~27일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

예방 중심 감사문화정착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6~27일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무태대, 품위훼손, 복무위반 및 금품 등 수수행위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기강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주요 사례를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사 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핵심인재양성

6기 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지난 13일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지방공무원 핵심인재양성 6기 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6급 핵심인재양성 6기 과정에서 연구한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전북교육정책에 관심있는 지방공무원 230여 명이 함께했다.

6급 핵심인재양성 과정은 6급 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6개월 장기교육과정으로 공직가치 및 전문 직무역량, 소통과 통합에 필요한 관계역량, 자기개발 미래역량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행정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정책연구 주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문화 진단 및 변화관리 방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생성형 AI챗봇 도입 방안 △지속가능한 전북교육 ESG 행정 도입 방안 등으로 변화하는 교육행정 환경을 반영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육공동체·소상공인 간 협력 강화

전북교육청-전북소상공인연합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전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락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 소통하며, 소상공인과 교육공동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도내 12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와 2,500여 명으로 구성,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도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강락현 회장은 “교육청과의 협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전북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미래세대들이 지역 경제 가치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교육청이 지역 경제의 중심

에서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과 경제가 조화를 이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프로그램 사례 공유

전북자치도교육청, ‘이심전심 힐링토크콘서트’

교육활동 보호 학교 제작 영화 상영 등 구성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혁신도시북한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이심전심 힐링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 내 교권 보호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학교 제작 영화 상영 △벽화 프로젝트 사

례 발표 △작가와의 만남 △개그맨과 함께하는 웃음 힐링 퍼포먼스 등이다.

이날 임정호 전주삼천남초 교사(정호의 브런치스토리 작가), 이승화 고창부안초 교사(교육활동보호 영화제작 프로젝트 담당), 전미옥 전주교대전주부설초 교사(교육활동보호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담당)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고창부안초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상영이 있었다.

신규 발령을 받은 담임 교사가 겪는 도전과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교사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교실 내 문제를 통해 오늘날 교육의 어려움을 담았다.

전주교대전주부설초의 ‘행복한 학교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 예술가가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활동을 공유했다.

끝으로 전주삼천남초 교사이자 작가인 임정호 교사는 교사로서의 일상에서 느낀 점과 고민을 나누며, 선생님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식품산업 미래 대비 혁신적 전략 방안 논의

우석대, ‘푸드테크와 K-푸드산업진흥전략 포럼’ 개최

우석대학교 취업 연계형 식품특성화 대학원 사업단은 지난 12~13일 원주상관리조트 세미나실에서 ‘2024 푸드테크와 K-푸드산업진흥전략 과학기술포럼’과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동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석용 취업 연계형 식품특성화 과정 총괄책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푸드테크와 K-푸드산업진흥전략 과

학기술포럼’에서는 박정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차장이 ‘푸드테크 기술 개발과 HMR 산업화’를, 채수완 전북대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교수가 ‘K-푸드 식생활과 운동으로 쌓는 건강연금 복리효과’를, 임재운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장이 ‘라이프케어 위한 맞춤형 식의약품 개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유선미 국립농업과학원 과장과 김재운 미생 대표, 박미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대용 우석대학교 한의학과장, 김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국장, 차연수 전북대 교수가 발표된 내용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또한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동계 세미나’에서는 박미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팀장과 양갑식 우석대학교 교수, 이종진 용진농협 로컬푸드 조합장, 서경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장, 박기범 아워홈 팀장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장은성 기자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 퇴적물 이동과정 분석

전북대 윤하원 박사과정생, 대한지질학회 우수논문 발표자상

전북대학교 윤하원 박사과정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지도교수 서인아)이 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4 대한지질학회 추계지질학 연합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부문 학생 우수논문 발표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윤 박사과정생은 ‘전곡리 구석기 유적 내 최상부 제4기 미고결



퇴적층의 Sr-Nd 동위원소 조성과 기원’을 주제로 구두발표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경기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미고결 퇴적층의 기원지와 퇴적물의 이동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Sr(스트론튬)과 Nd(네오디뮴) 동위원소 조성을 활용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으며, 고기후 복원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장은성 기자

미숙아의 발달성 언어장애 상관관계 분석

전북대 이세현 학부생, 대한의료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세현 학부생(의예과 2년)이 최근 열린 ‘2024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세현 학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뇌 자기공명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뉴로퀀트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저체중아의 뇌 용적 지표와 발달성 언어 장애 간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환아들의 뇌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뉴로퀀트(NeuroQuant)’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뇌 용적을 분석하고,



이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미숙아의 발달성 언어 장애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특히 신생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적은 뇌 영상분석을 인공지능으로 연구했다는 점과,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 뇌 발달 이상과 발달장애 간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숙아 출생 후 초기 MRI 촬영으로 발달성 언어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이를 통해 언어 치료의 초기 개입으로 장애의 위험성을 낮추고, 추후 예측 모델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주최한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개최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J골프아카데미 숙녀회,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J골프아카데미 숙녀회(회장 이미경)가 지난 12일 전주대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3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윤찬영 대외부총장, 홍성택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J골프아카데미 숙녀회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전주대 평생교육원 J골프아카데미는 여성 골프반과 직장인 골프반으로, 15주 정규과정과 8주 특강과정으로 구성된 2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경 회장은 “골프를 매개로 여성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앞으로 더욱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전주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 평생 학습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발전기금은 평생교육원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돼 지역 사회와 더욱 상생하는 평생교육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